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 I)



※ 논술(KU논술우수자)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3. 1번 문항은 답안지 앞면의 [문제 1]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2번 문항은 답안지 뒷면의 [문제 2]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 답안은 어문 규범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라 작성하되, 분량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5. 답안지 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6. 답안지 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답안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7.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연필, 샤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함)
8. 답안 작성 및 수정 시에는 개인이 지참한 흑색 필기구, 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문제 2]: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중략)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격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나]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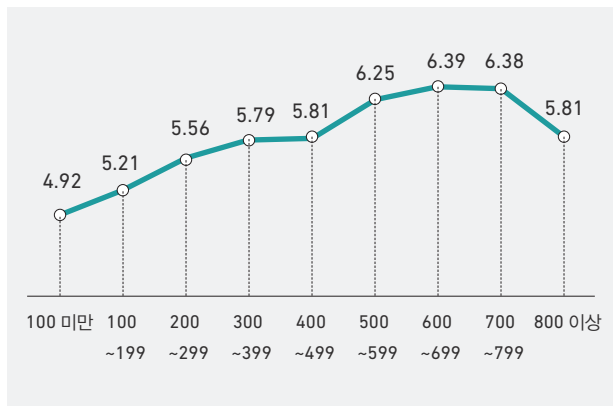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解脫)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에고)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 했다. (중략)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發現)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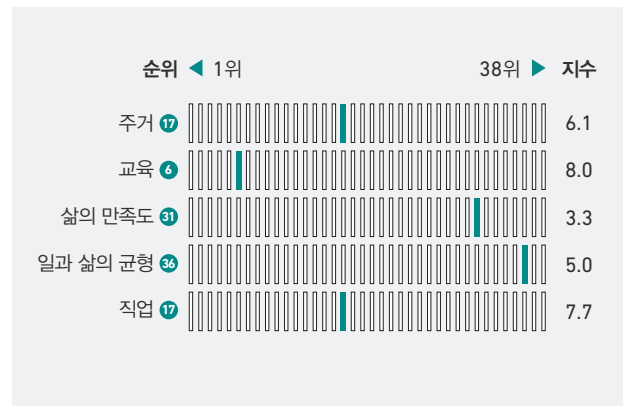
- 고등학교 「국어」

[다] [도표 1]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0 ~10
 ※ 소득 기준: 월 소득, 단위: 만원
 (통계 개발원, 2015)

[도표 2]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순위



※ 지수(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좋음)
 ※ 순위는 OECD 38개국 중의 순위(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28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2016)

-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 **앞부분 줄거리:** 초등학교생인 지소와 지석 남매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지자 엄마와 함께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친구들한테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말했던 지소는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평당 500만 원"이라고 써진 주택 매매 전단을 본다. 오백만 원만 있으면 '평당'에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 지소는 개를 찾아 주면 오백만 원을 사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엄마 '정현'이 일했던 레스토랑 '마르셀'에 있는 개 '월리'를 훔친 뒤 오백만 원을 받고 돌려줄 계획을 세운다. 마침내 지소는 월리를 훔치는 데 성공하지만, 개를 보관하며 보살피던 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이 월리를 죽은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고민에 빠진다.

S# 90 학교 -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 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 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데려다준다. → 돈을 받는다. → 행복하게 끝!"이라는 글이 보인다. '돈을 받는다.' 부분 시유(C.U)*

지소(내레이션)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오백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채랑 (지소의 행동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왜?
지소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채랑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학원도 막 빼먹고, 근데 드디어 어제 엄마한테 걸렸어.
지소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채랑 정말?
지소 우리 월리를 마르셀 앞에까지만 데려다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채랑 오, 완벽한데? 좋았어!

S# 97 레스토랑 마르셀 -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월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 준다.
지소 월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이때 노부인이 나타나자 월리가 노부인에게 달려간다.
노부인 (지소를 바라보며) 월리를 찾아 줘서 고맙다. (월리를 쓰다듬으며) 네 말대로 월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진 않구나.
지소 그럼 전 이만 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소는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문 앞에 다다라 멈춰 선 지소는 돌아서서 노부인을 바라본다.
지소 근데 월리는 목줄을 풀어 주면 엄청 좋아해요.
노부인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지소 사실은.....
노부인
지소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노부인 (지소를 바라보며) 뭐?
지소 (입술을 파르르 떨며) 사실은 제가 월리를 훔쳤어요.
 노부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야기하는 지소. 노부인은 그런 지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 그 위로 들리는 지소 목소리.
지소(내레이션)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 얘기부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오백만 원짜리 전셋집이랑 그 집 앞마당에서의 생일 파티까지..... 모두 말했다.
노부인 (고개를 끄덕이며)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뚝뚝 흘린다.
지소 죄송해요. 전 이만 가 볼게요.

S# 98 레스토랑 마르셀 - 정원, 저녁

어깨가 축 늘어진 지소가 계단을 내려간다. 처량해 보이는 지소.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노부인 애야.
 지소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노부인이 계단 위에 서 있다.
노부인 내일 마르셀에 와서 월리 산책을 시켜 주겠니? 대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마.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지소.

S# 100 아파트 단지 밖 - 승합차 안, 밤

일을 마친 정현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온다. 지소, 공책을 덮고 정현을 본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도시락을 꺼내서 지소와 지석에게 나눠 주는 정현.
지소, 지석 이게 뭐야?
정현 열어 봐.
 지소와 지석은 도시락을 열어 본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는 지소. 정성껏 꾸민 도시락이다. 도시락 안, 작은 쪽지에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쓰여 있다.
정현 엄마가 지소 생일 절대 잊지 않아. 생일 축하해, 지소야.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지소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정현을 꼭 껴안는다.
 *시유(C.U.: close-up):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문제해설지(인문사회계 I)



01 출제 의도

2022학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읽기 능력과 사고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충실하고자 했다.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요구함으로써 논술(KU논술우수자)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가]에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명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개인 본연의 구체적 경험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이 대비되어 있다. 이 두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저자는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가치 등을 좇아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도 '소유'하는 인간과 '존재'하는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성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이나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두 도표를 바라본다면, [도표 1], [도표 2]에서 공통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표 1]은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도표 2]는 물질적인 환경의 발달이 반드시 정신적 영역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 1]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표의 지표들이 주는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 2]는 [가], [나]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 지문의 인물,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야 한다.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하여 레스토랑 '마르셀' 주인의 개 월리를 훔칠 계획을 세우며 이를 통해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단계에서 주인공인 지소가 지닌 생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현실적 거주 공간인 승합차가 아니라 욕망의 가상공간인 멋진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자 하는 지소의 마음은 [가] 지문에서 말한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응시생들은 언급해야 한다. [나]에서 말한 '소유 양식의 삶'을 통해서도 지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소는 집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고 집을 얻기 위해서 금전을 획득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타인의 개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려 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릇된 행동의 연쇄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라]의 끝부분에서 지소의 심리 상태가 변화했음을 응시생들은 주목해야 한다. 비록 지소가 개를 훔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소유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타자가 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지소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결국 지소가 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의 가치와 존재 지향적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문제 2]에서는 [가]와 [나]의 대비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더불어 심리적 변화 과정을 잘 짚어내어 설득력 있는 답안을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2학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비판적, 창의적, 성찰적 인재를 선발하려 한다.

02 문항 해설

▶ 1번 문항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즉, [다]에 제시된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도표 1]'와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순위[도표 2]'에서 보이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한다.

[가]와 [나]는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가]에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명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개인 본연의 구체적 경험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이 대비되어 있다. 이 두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저자는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가치 등을 좇아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한편

[나]에서도 '소유'하는 인간과 '존재'하는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성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가]와 [나]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요약하자면, 타인의 시선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나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에는 도표가 두 개 제시되어 있다. [도표 1]은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인데, '소득'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삶의 만족도'와 어떤 상관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도표 1]을 보면 소득 800만 원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나, 그 이상이 되면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표 2]에는 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와 순위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8위인데,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주거, 교육, 직업'이며,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은 30위권 밖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이 38개국임을 상기한다면, '주거, 직업'은 평균 정도이고, '교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평균 혹은 그 이상을 보이는 이 세 지표는 모두 물질적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하위권을 기록한 두 지표는 모두 정신적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도표 2]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물질적 환경은 OECD 평균 혹은 그 이상을 이루었으나, 그에 상응할 만한 우리의 정신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번 문항

[문제 2]는 응시자들에게 [가]와 [나]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 지문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논할 것을 요구한다. 응시자들은 각 지문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뒤 지문 [라]의 분석에 이 내용을 응용할 수 있으며 혹은 먼저 [라] 지문의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 [나]의 핵심 개념을 인용할 수도 있다.

응시자들이 파악해야 하는 [가], [나] 지문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자면 인간의 삶에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 있는 삶'이란 내가 진정 원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타자가 높게 평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들의 눈에 자신의 삶이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삶의 경우 자신의 인생이 타자에게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내적으로 반드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행복한 삶'이란 남들의 가치 기준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진정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지문 [나] 역시 인간의 삶을 '소유 양식의 삶'과 '존재 양식의 삶'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소유 양식의 삶'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외적으로 무형, 유형적 가치를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이상시하는 삶이다. 이런 소유 양식의 삶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걱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에 반해 '존재 양식의 삶'이란 자신의 존재와 능력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린 삶이기에 소유물의 상실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며 안정적, 주체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 지문과 [나] 지문 모두 개인 주체성의 충만 혹은 결여를 기준으로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타자의 가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끼워 넣은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또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외재적 존재인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공히 개인의 주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응시생들의 핵심 개념 요약은 개인에 따라 그 구체성을 달리할 수 있지만 대략 이러한 개념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응시생들은 이러한 [가], [나]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 지문의 인물을 분석해야 한다. 우선 [라] 지문에서의 인물이란 주인공인 지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 지문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하여 레스토랑 '마르셀' 주인의 개 월리를 훔칠 계획을 세우며 이를 통해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단계에서 주인공인 지소가 지닌 생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집도 잃고 승합차에 거주하며 가난에 허덕이게 된 지소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근사하게 생일 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인 멋진 집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인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개를 훔치려 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적 거주 공간인 승합차가 아니라 욕망의 가상 공간인 멋진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자 하는 지소의 마음은 [가] 지문에서 말한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응시생들은 언급해야 한다. 즉 자신의 현실적 생활 공간인 승합차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웠기에 타자의 기준에 걸맞는 멋진 집을 파티의 장소로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소가 개를 훔치고자 한 행동에는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한 욕망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는 [나]에서 말한 '소유 양식의 삶'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기에 응시생들은 지문 [나]와의 연결성을 언급해야 한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소는 집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고 집을 얻기 위해서 금전을 획득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타인의 개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러한 행동의 연쇄작용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지소가 공책에 "행복하게 끝"이라고 써 놓은 것은 이렇게 소유욕에 추동된 행동의 결과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라] 지문의 끝부분에서 지소의 심리 상태가 변화했음을 응시생들은 주목해야 한다. 응시생들은 비록 지소가 개를 훔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소유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타자가 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지소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지소가 결국 개의 주인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실토하고 개를 돌려주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지소가 스스로 말했듯이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고 또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소가 깨달았듯이 이러한 행동은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삶이었던 것이었다. 지소의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지소가 본래 추구했던 소유 양식적 삶, 그리고 타자의 가치를 지향했던 삶의 파탄을 의미한다. 자신이 본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러한 삶을 지향한 결과가 자신의 내적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응시생들은 [라]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지소의 어머니 정현은 자신이 손수 정성껏 꾸민 도시락을 지소에 건네며 승차에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지소의 생일 파티를 연다. 이러한 방식의 생일 파티는 지소가 본래 꿈꾸었던 화려한 집에서 친구들을 모아 놓고 여는 그 렷듯한 생일 파티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한 지소의 행복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개를 훔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자 이 행동을 고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은 지소 자신의 용기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을 것이다. 응시생들은 이것은 곧 지소 개인의 행복이 타자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체적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함을 언급할 수 있다. 지소는 [가] 지문에서 말한 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다. 이는 또한 [나] 지문에서 언급한 물질 추구적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 지향적 삶의 가치를 지소가 깨달은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03 채점 기준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p>[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두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다]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지문을 근거 삼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평가 영역</th> <th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td> <td>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가]는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있는 삶'과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나]는 소유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 [가]의 핵심 개념어는 '가치'와 '행복'이지만 이것의 내용인 인정과 평가, 경험과 쾌락을 서술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나]의 핵심 개념어는 '소유'와 '존재'로 논점을 위해 집착과 불안, 주체성과 나의 실현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평가와 명분에 매달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도표 1]은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도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가치와 소유에 해당하는 교육, 주거 등의 순위와 지수가 높음에도 나의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td> <td> <p>④ [가]와 [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립과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 정당성을 [다]의 [도표 1]을 통해 제시하고 [도표 2]의 항목에 연결해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도표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면 안되고, [가]와 [나]의 공통적 문제의식과 관점을 이해한 후 각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도표 1]과 [도표 2]는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소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는 물질적 소유나 이를 통한 과시가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도표 2]에서는 평판이나 소유 가치와 연관되는 항목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짐을 근거로 왜 나의 행복이 명분보다 중요하고, 소유보다 나의 고유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필요한지 도표를 근거로 강조해야 한다. 지문과 도표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표 항목과 지문의 관점이 연결됨을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td> <td> <p>⑤ 지문의 내용과 논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본인 주장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가]는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있는 삶'과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나]는 소유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 [가]의 핵심 개념어는 '가치'와 '행복'이지만 이것의 내용인 인정과 평가, 경험과 쾌락을 서술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나]의 핵심 개념어는 '소유'와 '존재'로 논점을 위해 집착과 불안, 주체성과 나의 실현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평가와 명분에 매달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도표 1]은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도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가치와 소유에 해당하는 교육, 주거 등의 순위와 지수가 높음에도 나의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p>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가]와 [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립과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 정당성을 [다]의 [도표 1]을 통해 제시하고 [도표 2]의 항목에 연결해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도표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면 안되고, [가]와 [나]의 공통적 문제의식과 관점을 이해한 후 각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도표 1]과 [도표 2]는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소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는 물질적 소유나 이를 통한 과시가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도표 2]에서는 평판이나 소유 가치와 연관되는 항목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짐을 근거로 왜 나의 행복이 명분보다 중요하고, 소유보다 나의 고유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필요한지 도표를 근거로 강조해야 한다. 지문과 도표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표 항목과 지문의 관점이 연결됨을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지문의 내용과 논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본인 주장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40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가]는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있는 삶'과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나]는 소유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 [가]의 핵심 개념어는 '가치'와 '행복'이지만 이것의 내용인 인정과 평가, 경험과 쾌락을 서술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나]의 핵심 개념어는 '소유'와 '존재'로 논점을 위해 집착과 불안, 주체성과 나의 실현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평가와 명분에 매달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도표 1]은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도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가치와 소유에 해당하는 교육, 주거 등의 순위와 지수가 높음에도 나의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p>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가]와 [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립과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 정당성을 [다]의 [도표 1]을 통해 제시하고 [도표 2]의 항목에 연결해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도표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면 안되고, [가]와 [나]의 공통적 문제의식과 관점을 이해한 후 각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도표 1]과 [도표 2]는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소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는 물질적 소유나 이를 통한 과시가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도표 2]에서는 평판이나 소유 가치와 연관되는 항목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짐을 근거로 왜 나의 행복이 명분보다 중요하고, 소유보다 나의 고유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필요한지 도표를 근거로 강조해야 한다. 지문과 도표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표 항목과 지문의 관점이 연결됨을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지문의 내용과 논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본인 주장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	<p>[문제 2]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평가 영역</th> <th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가]와 [나]에 대한 이해</td> <td> <p>① [가]와 [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가? [가]는 타자의 가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명분 위주의 삶과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간의 삶을 구분한다. [나]는 인간의 삶을 외재적 가치 소유를 중시하는 소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중시하는 존재의 삶으로 구분한다.</p> <p>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 고리를 찾았는가? [가]와 [나] 지문은 모두 자신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삶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타인이 정한 명분 위주의 삶이 아닌 개인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도 주체적 삶이며 외재적 사물의 소유가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에 주목하는 삶 역시 주체적 삶이기 때문이다.</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td> <td> <p>③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였는가? [라]의 주인공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 집이 필요하였고 집을 획득할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 주인의 개를 훔쳤다.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생일잔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지소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지소는 자신의 현실적 주거 공간인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조출한 생일 파티를 치루며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 행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나, 타자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td> <td> <p>④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논하였는가? 주인공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 [나] 지문에서 대비된 명분 위주의 삶/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 그리고 소유의 삶/존재의 삶이란 개념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 추구가 지소의 행동을 유발했지만 결국 개인의 주체성이 지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었음을 언급해야 한다.</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td> <td>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가? [가]는 타자의 가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명분 위주의 삶과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간의 삶을 구분한다. [나]는 인간의 삶을 외재적 가치 소유를 중시하는 소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중시하는 존재의 삶으로 구분한다.</p> <p>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 고리를 찾았는가? [가]와 [나] 지문은 모두 자신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삶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타인이 정한 명분 위주의 삶이 아닌 개인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도 주체적 삶이며 외재적 사물의 소유가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에 주목하는 삶 역시 주체적 삶이기 때문이다.</p>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	<p>③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였는가? [라]의 주인공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 집이 필요하였고 집을 획득할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 주인의 개를 훔쳤다.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생일잔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지소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지소는 자신의 현실적 주거 공간인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조출한 생일 파티를 치루며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 행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나, 타자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p>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p>④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논하였는가? 주인공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 [나] 지문에서 대비된 명분 위주의 삶/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 그리고 소유의 삶/존재의 삶이란 개념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 추구가 지소의 행동을 유발했지만 결국 개인의 주체성이 지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었음을 언급해야 한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60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가? [가]는 타자의 가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명분 위주의 삶과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간의 삶을 구분한다. [나]는 인간의 삶을 외재적 가치 소유를 중시하는 소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중시하는 존재의 삶으로 구분한다.</p> <p>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 고리를 찾았는가? [가]와 [나] 지문은 모두 자신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삶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타인이 정한 명분 위주의 삶이 아닌 개인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도 주체적 삶이며 외재적 사물의 소유가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에 주목하는 삶 역시 주체적 삶이기 때문이다.</p>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	<p>③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였는가? [라]의 주인공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 집이 필요하였고 집을 획득할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 주인의 개를 훔쳤다.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생일잔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지소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지소는 자신의 현실적 주거 공간인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조출한 생일 파티를 치루며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 행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나, 타자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p>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p>④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논하였는가? 주인공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 [나] 지문에서 대비된 명분 위주의 삶/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 그리고 소유의 삶/존재의 삶이란 개념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 추구가 지소의 행동을 유발했지만 결국 개인의 주체성이 지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었음을 언급해야 한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 [문제 1], [문제 2]를 위와 같이 채점하여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함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6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1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7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 1번 문항

[가]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대립시킨다.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 평가다. 반면 '행복한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동적 태도를 견지한다. [나]를 보면 소유의 삶은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물질 대상을 향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서 욕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반면 존재를 중시하는 삶은 중심을 내 안에서 찾고, 내 능력을 발현하면서 삶의 실현을 도모한다.

[도표 1]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을 보아 소유와 물질적 여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의 관점처럼 남들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도표 2]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소유와 연관되는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이지만 주관적 행복과 연관되는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은 오히려 최하위에 속한다. 결국 도표를 종합해보면 더 나은 삶은 소유나 평판보다는 주체적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2번 문항

[가], [나]는 '행복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는 행복은 사회적 가치보다 쾌락적 즐거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나]는 상실을 두려워하며 걱정에 시달리게 하는 소유 대신, 자신의 존재 능력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두 지문 모두 주체적인 행복 추구를 중시한다.

이를 적용하며 [라]의 주인공인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논하도록 하겠다. 지소는 율리를 훔쳤다. '평당'에 있는 집을 산 후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서이다. 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 만족을 얻으려는 소유욕에 따른 행동으로, 여기에는 죄의식과 불안이 뒤따른다. 이후 지소는 율리를 돌려주었다. 율리로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하게 끝!"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목표 자체가 "끔찍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체적 각성 덕분에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

지소에게 이러한 경험은 흠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고백한 용기와 용서받았던 경험은 이후 지소에게 안정감과 주체성의 원천으로 남아 자기 존재로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한편, [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멋진 생일 파티'라는 쾌락적 즐거움을 포기한 지소가 불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쾌락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으로 '좋은 집', '멋진 부모님', '남이 부러워할 만한 생일 파티'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정작 지소가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해도, 이는 "명분에 양보하는 행복"을 넘어, 지소와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는 비극적 사건이 되었을 터이다.

생일날, 지소는 엄마의 도시락을 받아두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마 지소는 그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해준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맛을 선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차 안에서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준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 결국 행복의 열쇠라 할 것이다.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27-28		×
고등학교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372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0	29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36		○
고등학교 국어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20	86-98		×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 II)



※ 논술(KU논술우수자)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3. 1번 문항은 답안지 앞면의 [문제 1]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2번 문항은 답안지 뒷면의 [문제 2-1] / [문제 2-2] / [문제 2-3]으로 기재된 답안 영역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 1번 답안은 어문 규범과 원고지 사용 규칙을 따라 작성하되, 분량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답안은 감점 처리함) 2번 답안은 별도로 글자 수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식 및 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답안지 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6. 답안지 상의 수험번호 및 생년월일은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답안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7.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흑색 필기구(연필, 샤프, 검정색 볼펜)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작성한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함)
8. 답안 작성 및 수정 시에는 개인이 지참한 흑색 필기구, 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이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는 답안, 낙서 또는 표식이 있는 답안은 모두 최하점으로 처리합니다.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중략)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나]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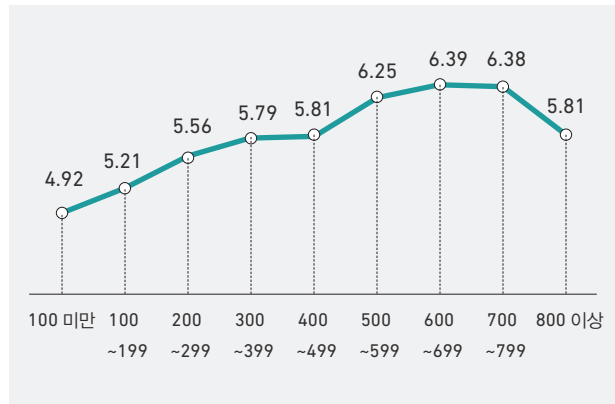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解脫)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이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에고)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 했다. (중략)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發現)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게 근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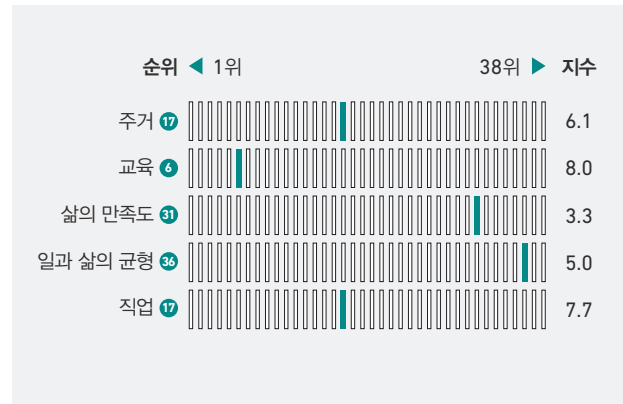
- 고등학교 「국어」

[도표 1]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0 ~10
 ※ 소득 기준: 월 소득, 단위: 만원
 (통계 개발원, 2015)

[도표 2]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순위



※ 지수(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좋음)
 ※ 순위는 OECD 38개국 중의 순위(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28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2016)

-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0점]

[라]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확률이라 하며, 이것을 기호로 $P(B|A)$ 와 같이 나타낸다.

$$P(B|A) = \frac{P(A \cap B)}{P(A)}$$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마] •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수요는 가격이 1,000원일 때 30병, 가격이 1,500원일 때 20병과 같이 여러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을 수요표라 하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곡선이라고 한다.
 •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공급은 가격이 1,000원일 때 30병, 1,500원일 때 40병과 같이 여러 가격 수준에서의 공급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을 공급표라 하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곡선이라고 한다.
 •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의 가격과 거래량을 말한다.

- 고등학교 「경제」

[바] 이산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	x_1	x_2	\cdots	x_n	합계
$P(X=x_i)$	p_1	p_2	\cdots	p_n	1

$x_1p_1 + x_2p_2 + \cdots + x_np_n$ 를 이산확률변수 X 의 기댓값 또는 평균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E(X)$ 와 같이 나타낸다.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문제 2-1]: 어느 회사의 직원 중 절반은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회사에는 두 팀 A와 B가 있다. 기술자격을 보유한 직원 중 80%는 A팀에서 일하고 20%는 B팀에서 일한다. 기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중 40%는 A팀에서 일하고 60%는 B팀에서 일한다. 예지는 이 회사의 A팀에서 일하고 있다. [라]를 참고하여, 예지가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몇 %인지 구하시오. (답은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15점]

[문제 2-2]: [마]를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022년 1년간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단, P^d 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 P^s 는 공급자가 지급받는 가격, Q 는 수량이다. 가격의 단위는 원이다.)

$$\begin{aligned} 2022\text{년 수요곡선: } Q &= 1 - P^d \\ 2022\text{년 공급곡선: } Q &= P^s \end{aligned}$$

정부는 이 재화 한 단위당 tP^s (단, $0 \leq t \leq 1$)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세금이 부과된 후 시장의 균형은 다음 식에 따라 정해진다.

$$P^d = P^s + tP^s$$

2023년 이후의 수요곡선은 전년도의 균형수량이 수량 축 절편이 된다. 예를 들어, 2022년 균형수량을 Q_{2022} 라 하면 2023년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다.

$$2023\text{년 수요곡선: } Q = Q_{2022} - P^d$$

2023년 이후의 공급곡선은 2022년과 동일하다. 2023년 이후에도 정부는 각 연도 공급자수취가격에 t 를 곱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30년 균형수량이 0.001원이 되도록 하는 t 의 값을 구하시오.

($\sqrt[9]{0.001} \approx 0.464$, $\sqrt[10]{0.001} \approx 0.501$, $\sqrt[18]{0.001} \approx 0.681$, $\sqrt[20]{0.001} \approx 0.708$ 을 활용하고, 답은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20점]

[문제 2-3]: 사장 1명과 근로자 1명이 일하는 가게가 있다. 이 가게의 수입은 근로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관찰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수입은 관찰할 수 있다. y 를 이 가게의 수입이라고 하자. 문제를 단순화하여 수입은 100(“고수입”) 또는 40(“저수입”) 둘 중 하나라고 하자.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근면”), 8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며 2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태업”), 4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며 6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근로에는 정신적·육체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을 x 라 하자. 근로자가 근면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5이며, 태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3이다.

사장 and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 사장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현된 수입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구체적으로 고수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w_H 의 임금을 지불하며, 저수입이 발생할 경우 w_L 의 임금을 지불한다. (단, w_H 와 w_L 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근로자에게 w_H 와 w_L 의 값을 제안하며, 근로자는 이를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이 가게에서 일할 경우 얻는 효용을 u 라고 하면, $u = w - x$ 이다. (w 는 임금을 나타내며 가게의 수입에 따라 w_H 또는 w_L 값을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다른 일을 할 경우 3만큼의 고정된 효용을 얻는다.

사장의 이윤은 가게의 수입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을 뺀 값이다. 즉 이윤을 π 라고 하면 $\pi = y - w$ 이다.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할 경우 사장의 이윤은 0이라고 하자. 사장은 이윤의 기댓값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근로자는 효용의 기댓값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 가게에서 얻는 효용과 다른 일을 할 경우 얻는 효용이 동일하다면 이 가게에서 일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과 태업하는 것의 효용이 동일하다면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하자.

[바]를 참고하여, 사장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면서 사장 본인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사장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윤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또한 이 경우 사장의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w_H 와 w_L 의 다양한 조합 중 그 둘의 차($w_H - w_L$)가 최소가 되게 하는 w_H 와 w_L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25점]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해설지(인문사회계 II)



01 출제 의도

2022학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읽기 능력과 사고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충실하고자 했다.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요구함으로써 논술(KU논술우수자)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가]에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명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개인 본연의 구체적 경험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이 대비되어 있다. 이 두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저자는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가치 등을 좇아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도 '소유'하는 인간과 '존재'하는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성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이나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두 도표를 바라본다면, [도표 1], [도표 2]에서 공통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표 1]은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도표 2]는 물질적인 환경의 발달이 반드시 정신적 영역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 1]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표의 지표들이 주는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 2-1]은 조건부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계산에 필요한 식은 지문 [라]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을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도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예로 포함될 법한 단순한 상황이어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이다.

[문제 2-2]는 연립방정식과 등비수열의 개념을 시장균형의 분석에 활용하는 문제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여 등비수열을 만들어 내도록 했다. 계산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문제를 설계하였고, 수요곡선, 공급곡선, 시장균형 등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공통과목인 「수학」과 「수학 I」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2-3]은 부등식과 수학적 기댓값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이다. "사장"과 "근로자" 두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을 일종의 최적화 문제로 표현하였는데 문제풀이에 최적화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에 주어진 확률을 활용하여 수학적 기댓값을 계산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부등식으로 표현한 후, 「수학」에서 배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답을 구하도록 했다. 지문이 비교적 길어서 난이도가 낮지는 않지만, 계산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문제를 설계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2학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수학적 개념과 수식을 활용하는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판적, 창의적, 수학적 사유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 한다.

02 문항 해설

▶ 1번 문항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즉, [다]에 제시된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도표 1]'와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순위[도표 2]'에서 보이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한다.

[가]와 [나]는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가]에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명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개인 본연의 구체적 경험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이 대비되어 있다. 이 두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저자는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가치 등을 좇아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한편 [나]에서도 '소유'하는 인간과 '존재'하는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성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가]와 [나]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요약하자면, 타인의 시선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나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에는 도표가 두 개 제시되어 있다. [도표 1]은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인데, '소득'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삶의 만족도'와 어떤 상관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도표 1]을 보면 소득 800만 원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나, 그 이상이 되면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표 2]에는 OECD 38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와 순위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8위인데,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주거, 교육, 직업'이며,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은 30위권 밖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이 38개 국임을 상기한다면, '주거, 직업'은 평균 정도이고, '교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평균 혹은 그 이상을 보이는 이 세 지표는 모두 물질적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하위권을 기록한 두 지표는 모두 정신적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도표 2]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물질적 환경은 OECD 평균 혹은 그 이상을 이루었으나, 그에 상응할 만한 우리의 정신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번 문항

[문제 2-1]

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집합을 O, 가지지 않은 직원의 집합을 X라 하자. 또한 A팀에 속한 직원의 집합을 A, B팀에 속한 직원의 집합을 B라고 하자. 문제에서 제시된 값에 따라 $P(O)=0.5$, $P(X)=0.5$, $P(A|O)=0.8$, $P(B|O)=0.2$, $P(A|X)=0.4$, $P(B|X)=0.6$

$$P(O|A) = \frac{P(O \cap A)}{P(A)} = \frac{P(A|O)P(O)}{P(A|O)P(O) + P(A|X)P(X)} = \frac{0.8 \times 0.5}{0.8 \times 0.5 + 0.4 \times 0.5} = \frac{2}{3}$$

따라서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은 0.670이다.

[문제 2-2]

2022년 균형조건은 $1-Q = Q + tQ$ 이며, 이를 풀면 $Q_{2023} = \frac{1}{2+t}$ 를 얻는다. 2023년의 균형조건은 $Q_{2022} - Q = Q + tQ$ 이며, 이를 풀면 $Q_{2023} = \frac{Q_{2022}}{2+t} = \frac{1}{(2+t)^2}$ 을 얻는다.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면 2030년의 균형수량은 $Q_{2030} = \frac{1}{(2+t)^9}$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값이 0.001원이 되도록 하는 t 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frac{1}{(2+t)^9} = 0.001$. $\sqrt[9]{0.001} \approx 0.464$ 인 점을 활용하면 $\frac{1}{2+t} \approx 0.464$ 로 쓸 수 있고,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얻게 되는 값은 $t = 0.160$ 이다.

[문제 2-3]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 8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여 w_H 의 임금을 얻고, 2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하여 w_L 만큼의 임금을 얻는다. 근로자가 태업할 경우 4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여 w_H 의 임금을 얻고, 6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하여 w_L 만큼의 임금을 얻는다. 그리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할 경우 5만큼의 비용이 들며, 태업할 경우 3만큼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 효용의 기댓값은 $0.8 \times (w_H - 5) + 0.2 \times (w_L - 5)$ 이며, 태업할 경우 효용의 기댓값은 $0.4 \times (w_H - 3) + 0.6 \times (w_L - 3)$ 이다.

시장 입장에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려면 사장이 제안하는 w_H 와 w_L 가 $0.8 \times (w_H - 5) + 0.2 \times (w_L - 5) \geq 0.4 \times (w_H - 3) + 0.6 \times (w_L - 3)$ 을 만족해야 한다. 이 식을 간단히 하면 $0.4 \times w_H - 0.4 \times w_L \geq 2$ 가 된다. 이 부등식을 '식(1)'이라고 하자. 또한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가게에서 일하도록 하려면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얻는 효용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즉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려면 $0.8 \times (w_H - 5) + 0.2 \times (w_L - 5) \geq 3$ 이 성립해야 한다. 이 식을 간단히 하면 $0.8 \times w_H + 0.2 \times w_L \geq 8$ 이 된다. 이 부등식을 '식(2)'라고 하자. 우선 '식(1)'에서 $w_L \leq w_H - 5$ 이며 '식(2)'에서 $w_L \geq 40 - 4 \times w_H$ 이므로 $40 - 4 \times w_H \leq w_H - 5$, 즉 $w_H \geq 9$ 이며, $40 - 4 \times w_H \leq w_L \leq w_H - 5$ 인 영역에서 '식(1)'과 '식(2)'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w_H 와 w_L 의 조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_L 가 0 이상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밀하게는 $9 \leq w_H \leq 100$ 이며 $40 - 4 \times w_H \leq w_L \leq w_H - 5$ 인 영역)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 사장의 기대이윤은 $0.8 \times (100 - w_H) + 0.2 \times (40 - w_L)$ 이며, 이를 간단히 하면 $88 - (0.8 \times w_H + 0.2 \times w_L)$ 이다. 그런데 '식(2)'에 따라 $0.8 \times w_H + 0.2 \times w_L \geq 8$ 이기 때문에 $88 - (0.8 \times w_H + 0.2 \times w_L) \leq 80$ 이 성립한다. 즉 사장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윤의 최댓값은 80이며, 이는 '식(2)'가 등식으로 성립하는 경우, 즉 $0.8 \times w_H + 0.2 \times w_L = 8$ 인 경우이다. '식(1)'에서 $0.4 \times w_H - 0.4 \times w_L \geq 2$ 이며 따라서 w_H 와 w_L 의 차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0.4 \times w_H - 0.4 \times w_L = 2$ 이다. $0.8 \times w_H + 0.2 \times w_L = 8$ 과 $0.4 \times w_H - 0.4 \times w_L = 2$ 를 동시에 풀면 $w_H = 9$, $w_L = 4$ 가 된다.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p>[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두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다]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지문을 근거 삼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평가 영역</th> <th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td> <td>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가]는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있는 삶'과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나]는 소유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 [가]의 핵심 개념어는 '가치'와 '행복'이지만 이것의 내용인 인정과 평가, 경험과 쾌락을 서술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나]의 핵심 개념어는 '소유'와 '존재'로 논점을 위해 집착과 불안, 주체성과 나의 실현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평가와 명분에 매달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도표 1]은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도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가치와 소유에 해당하는 교육, 주거 등의 순위와 지수가 높음에도 나의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td> <td> <p>④ [가]와 [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립과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 정당성을 [다]의 [도표 1]을 통해 제시하고 [도표 2]의 항목에 연결해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도표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면 안되고, [가]와 [나]의 공통적 문제의식과 관점을 이해한 후 각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도표 1]과 [도표 2]는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소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는 물질적 소유나 이를 통한 과시가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도표 2]에서는 평판이나 소유 가치와 연관되는 항목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짐을 근거로 왜 나의 행복이 명분보다 중요하고, 소유보다 나의 고유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필요하지 도표를 근거로 강조해야 한다. 지문과 도표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표 항목과 지문의 관점이 연결됨을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ext-align: center;">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td> <td> <p>⑤ 지문의 내용과 논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본인 주장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가]는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있는 삶'과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나]는 소유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 [가]의 핵심 개념어는 '가치'와 '행복'이지만 이것의 내용인 인정과 평가, 경험과 쾌락을 서술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나]의 핵심 개념어는 '소유'와 '존재'로 논점을 위해 집착과 불안, 주체성과 나의 실현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평가와 명분에 매달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도표 1]은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도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가치와 소유에 해당하는 교육, 주거 등의 순위와 지수가 높음에도 나의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p>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가]와 [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립과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 정당성을 [다]의 [도표 1]을 통해 제시하고 [도표 2]의 항목에 연결해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도표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면 안되고, [가]와 [나]의 공통적 문제의식과 관점을 이해한 후 각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도표 1]과 [도표 2]는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소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는 물질적 소유나 이를 통한 과시가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도표 2]에서는 평판이나 소유 가치와 연관되는 항목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짐을 근거로 왜 나의 행복이 명분보다 중요하고, 소유보다 나의 고유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필요하지 도표를 근거로 강조해야 한다. 지문과 도표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표 항목과 지문의 관점이 연결됨을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지문의 내용과 논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본인 주장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40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가]는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있는 삶'과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나]는 소유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 [가]의 핵심 개념어는 '가치'와 '행복'이지만 이것의 내용인 인정과 평가, 경험과 쾌락을 서술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나]의 핵심 개념어는 '소유'와 '존재'로 논점을 위해 집착과 불안, 주체성과 나의 실현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평가와 명분에 매달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도표 1]은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도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가치와 소유에 해당하는 교육, 주거 등의 순위와 지수가 높음에도 나의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p>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가]와 [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립과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 정당성을 [다]의 [도표 1]을 통해 제시하고 [도표 2]의 항목에 연결해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도표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면 안되고, [가]와 [나]의 공통적 문제의식과 관점을 이해한 후 각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도표 1]과 [도표 2]는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소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는 물질적 소유나 이를 통한 과시가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도표 2]에서는 평판이나 소유 가치와 연관되는 항목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짐을 근거로 왜 나의 행복이 명분보다 중요하고, 소유보다 나의 고유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필요하지 도표를 근거로 강조해야 한다. 지문과 도표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표 항목과 지문의 관점이 연결됨을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지문의 내용과 논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본인 주장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6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1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 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7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	A+: 논리에 오류가 없고,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고, 답으로 0.67을 적음 A: 논리에 오류가 없고,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으나,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지 않음 B+: 논리에 오류가 없으나 계산 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있음 B: 논리에 오류가 없으나 계산 과정에 사소하지 않은 실수가 있음 C: 전체적 논리는 맞지만, 계산 과정에 두 가지 이상의 실수가 있음 D: 전체적 논리가 틀렸으나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보임 E: 전체적 논리는 틀렸으나 문제에 대한 아주 약간의 이해를 보임 F: 전체적 논리도 틀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이지 않음	15
[문제 2-2]	A+: 논리에 오류가 없고,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고, 답으로 0.16을 적음 A: 논리에 오류가 없고,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으나,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지 않음 B+: 전체적 논리에 오류가 없고, 2030년 균형수량을 계산하는 데까지 오류가 없으나, 그 이후 정답을 도출하지 못함 B: 각 연도의 균형수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는 데까지는 오류가 없으나 2030년 균형수량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함 C: 각 연도의 균형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였으나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지 못함 D: 2022년의 균형수량을 정확히 계산하였으나, 2023년의 균형수량을 계산하는데 실수가 있음 E: 2022년의 균형수량을 계산하지 못했으나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보임 F: 전체적 논리도 틀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이지 않음	20
[문제 2-3]	A+: 논리에 오류가 없고, 계산 과정에 실수가 없고, 답으로 80, 9, 4를 적음 A: 전체적 논리에 오류가 없으나, 계산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80, 9, 4 중 하나를 잘못 적음 B+: 전체적 논리에 오류가 없으나, 계산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80, 9, 4 중 두 가지를 잘못 적음 B: 전체적 논리에 오류가 없으나, 계산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로 80, 9, 4 세 가지를 모두 잘못 적음 C: 제약조건을 두 개의 부등식으로 정확히 표현하였으나 목적함수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함 D: 제약조건 중 한 가지는 정확히 표현하였으나 나머지 한 가지는 정확히 표현하지 못함 E: 제약조건이 모두 부정확하였으나,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보임 F: 전체적 논리도 틀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이지 않음	25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 [문제 1], [문제 2]를 위와 같이 채점하여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함

04 예시 답안

▶ 1번 문항

[가]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대립시킨다.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 평가다. 반면 '행복한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동적 태도를 견지한다. [나]를 보면 소유의 삶은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물질 대상을 향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서 욕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반면 존재를 중시하는 삶은 중심을 내 안에서 찾고, 내 능력을 발현하면서 삶의 실현을 도모한다.

[도표 1]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을 보아 소유와 물질적 여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의 관점처럼 남들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도표 2]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소유와 연관되는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이지만 주관적 행복과 연관되는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은 오히려 최하위에 속한다. 결국 도표를 종합해보면 더 나은 삶은 소유나 평판보다는 주체적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2번 문항

[문제 2-1]

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집합을 O, 가지지 않은 직원의 집합을 X라 하자. 또한 A팀에 속한 직원의 집합을 A, B팀에 속한 직원의 집합을 B라고 하자. 문제에서 제시된 값에 따라 $P(O)=0.5$, $P(X)=0.5$, $P(A|O)=0.8$, $P(B|O)=0.2$, $P(A|X)=0.4$, $P(B|X)=0.6$

$$P(O|A) = \frac{P(O \cap A)}{P(A)} = \frac{P(A|O)P(O)}{P(A|O)P(O) + P(A|X)P(X)} = \frac{0.8 \times 0.5}{0.8 \times 0.5 + 0.4 \times 0.5} = \frac{2}{3}$$

따라서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은 0.67이다.

[문제 2-2]

2022년 균형조건은 $1-Q = Q + tQ$ 이며, 이를 풀면 $Q_{2022} = \frac{1}{2+t}$ 를 얻는다. 2023년의 균형조건은 $Q_{2022} - Q = Q + tQ$ 이며, 이를 풀면 $Q_{2023} = \frac{Q_{2022}}{2+t} = \frac{1}{(2+t)^2}$ 을 얻는다.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면 2030년의 균형수량은 $Q_{2030} = \frac{1}{(2+t)^9}$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값이 0.001원이 되도록 하는 t 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frac{1}{(2+t)^9} = 0.001$. $\sqrt[9]{0.001} \approx 0.464$ 인 점을 활용하면 $\frac{1}{2+t} \approx 0.464$ 로 쓸 수 있고,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얻게 되는 값은 $t = 0.16$ 이다.

[문제 2-3]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 8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여 w_H 의 임금을 얻고, 2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하여 w_L 만큼의 임금을 얻는다. 근로자가 태업할 경우 4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여 w_H 의 임금을 얻고, 6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하여 w_L 만큼의 임금을 얻는다. 그리고 근로자는 열심히 일할 경우 5만큼의 비용이 들며, 태업할 경우 3만큼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 효용의 기댓값은 $0.8 \times (w_H - 5) + 0.2 \times (w_L - 5)$ 이며, 태업할 경우 효용의 기댓값은 $0.4 \times (w_H - 3) + 0.6 \times (w_L - 3)$ 이다.

사장 입장에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려면 사장이 제안하는 w_H 와 w_L 가 $0.8 \times (w_H - 5) + 0.2 \times (w_L - 5) \geq 0.4 \times (w_H - 3) + 0.6 \times (w_L - 3)$ 을 만족해야 한다. 이 식을 간단히 하면 $0.4 \times w_H - 0.4 \times w_L \geq 2$ 가 된다. 이 부등식을 '식(1)'이라고 하자. 또한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가게에서 일하도록 하려면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얻는 효용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즉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려면 $0.8 \times (w_H - 5) + 0.2 \times (w_L - 5) \geq 3$ 이 성립해야 한다. 이 식을 간단히 하면 $0.8 \times w_H + 0.2 \times w_L \geq 8$ 이 된다. 이 부등식을 '식(2)'라고 하자. 우선 '식(1)'에서 $w_L \leq w_H - 5$ 이며 '식(2)'에서 $w_L \geq 40 - 4 \times w_H$ 이므로 $40 - 4 \times w_H \leq w_L \leq w_H - 5$, 즉 $w_H \geq 90$ 이며, $40 - 4 \times w_H \leq w_L \leq w_H - 5$ 인 영역에서 '식(1)'과 '식(2)'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w_H 와 w_L 의 조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_L 가 0 이상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밀하게는 $9 \leq w_H \leq 100$ 이며 $40 - 4 \times w_H \leq w_L \leq w_H - 5$ 인 영역)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 사장의 기대이윤은 $0.8 \times (100 - w_H) + 0.2 \times (40 - w_L)$ 이며, 이를 간단히 하면 $88 - (0.8 \times w_H + 0.2 \times w_L)$ 이다. 그런데 '식(2)'에 따라 $0.8 \times w_H + 0.2 \times w_L \geq 8$ 이기 때문에 $88 - (0.8 \times w_H + 0.2 \times w_L) \leq 80$ 이 성립한다. 즉 사장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윤의 최댓값은 80이며, 이는 '식(2)'가 등식으로 성립하는 경우, 즉 $0.8 \times w_H + 0.2 \times w_L = 8$ 인 경우이다. '식(1)'에서 $0.4 \times w_H - 0.4 \times w_L \geq 2$ 이며 따라서 w_H 와 w_L 의 차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0.4 \times w_H - 0.4 \times w_L = 2$ 이다. $0.8 \times w_H + 0.2 \times w_L = 8$ 과 $0.4 \times w_H - 0.4 \times w_L = 2$ 를 동시에 풀면 $w_H = 9$, $w_L = 4$ 가 된다.

05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27-28		×
	고등학교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20	372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0	29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36		○
	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9	57, 60, 63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권오남 외	교학사	2019	62, 89		×